

이달의 초점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의 삶

아동의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 과제

|전진아

영유아 양육·돌봄, 발달 현황과 향후 과제

|김지현

초·중·고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영향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정

아동학대·방임의 실태와 시사점

|이주연

한국 아동의 행복 수준과 격차: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관적 웰빙 결과를 중심으로

|유민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영유아 양육 · 돌봄, 발달 현황과 향후 과제¹⁾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Education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연구에서는 2023년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돌봄과 발달에 대한 현황을 2018년 조사와 2023년 조사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2019~2021년 전 세계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과 돌봄 제공 상황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여전히 가정에서 영유아 돌봄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가 맡고 있지만, 아버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버지가 가정 내 돌봄 분담에서 맡은 역할의 범위가 보다 직접적인 돌봄까지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영유아 돌봄에서 아버지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돌봄 및 보육·교육 이용 양상 및 영유아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상황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가정에서의 돌봄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관계부처 합동, 2020)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을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

해서는 양육자가 제공하는 양질의 돌봄 제공이 중요한데,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또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부터 약 3년간 겪은 코로나19의 영향은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등 성장 시기마다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1) 이 글은 이상정, 이주연, 전진아, 김수진, 임성은, 신영규, 류정희, 하태정, 권영지, 김시아, 김지현, 유민상. (2023).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5장 아동의 발달 및 교육, 제7장 양육 및 돌봄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가정에서의 놀이 및 신체활동의 변화를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신체활동 시간은 증가하고 실외 신체활동 시간은 감소하였으며, 부모·자녀 간 놀이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권진아, 김지연, 2021). 가정 밖의 대면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기회는 증가했음을 뜻한다. 또한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신체발달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신체활동 기회 감소 등으로 감정적 스트레스나 불안 감 등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학습 격차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은영 외, 2023).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8년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 지원 체계를 포함한 양육·돌봄 프레임워크(Nurturing Care Framework)를 제시하였는데, 영유아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요소로 건강(Health), 영양(Nutrition), 보호(Protection), 배움(Early Learning)²⁾, 감정적 지원(Responsive Caregiving)을 내놓았다(WHO, 2018). 이는 영유아가 정기적 건강관리, 충분한 영양 섭취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애 초기 주양육자의 반응적인 양육과 감정적 교류, 정서적 교감 등을 통해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하며,

언어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통해 초기에 습득하게 되는 학습적인 측면들이 고르게 지원될 때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양육·돌봄의 주요 요소 중 양육자의 영유아 돌봄과 영유아의 발달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good health)’ 영역을 영유아의 발달 현황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반응적 돌봄(responsive caregiving)’을 양육자 현황과 공동양육, 자녀와의 관계, 양육 스트레스 등 돌봄의 질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 ‘생애 초기 배움(Early Learning)’ 영역을 영유아 기관 이용, 기타 돌봄, 사교육 이용 등 다양한 돌봄 및 교육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과 2023년의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 돌봄 상황 및 발달 변화도 살펴본다.³⁾

2 아동 양육과 돌봄

가. 아동의 주양육자 유형과 특성별 분석:

2018년과 2023년 비교

주양육자는 영유아⁴⁾를 주로 돌보는 사람으로

2) 생애 초기 학습은 언어, 수 등 전형적인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탐색을 통한 세상에 대한 깨달음부터 모든 배움이 포함되기에 ‘학습’이 아니라 ‘배움’로 해석하였음을 밝힌다.
 3)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년 결과와 2023년 결과 비교에서 2018년(류정희 외, 2018)의 경우 전체 표본 4000여 명 중 저소득층 가구를 1500가구 배분하였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이상정 외, 2023)에서는 총 5753가구 중 빈곤가구가 1000가구 포함되어 표본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하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조사 시점(2023. 9. 1) 기준으로 만 5세 이하인 아동을 0~5세 영유아로 구분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 2020. 12. 2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939#0000>

[표 1] 자녀 연령별 주양육자 비율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23년						
	어머니	아버지	외조부모/외가 식구	친조부모/친가 식구	아동의 형제 자매	사례 수	어머니	아버지	외조부모/외가 식구	육아 도우미	친조부모/친가 식구	아동의 형제 자매	사례 수
전체(0~17)	92.0	4.1	1.7	2.0	0.2	4,039	90.4	6.0	1.9	0.1	1.6	0.1	5,753
아동 연령	0~2세	92.3	3.2	1.7	2.7	0.0	512	90.7	4.7	3.2	0.7	0.7	543
	3~5세	90.8	2.6	3.3	3.0	0.4	730	91.0	4.3	3.1	0.0	1.3	830
	6~8세	91.4	4.1	2.1	2.1	0.0	579	91.8	3.8	3.2	0.7	0.7	0.0
	9~11세	93.8	3.2	1.0	2.0	0.0	743	89.7	6.7	3.1	0.0	1.3	0.0
	12~17세	91.7	5.6	1.1	1.1	0.4	1,476	89.7	7.5	2.5	0.0	1.8	0.0

주: 0~17세 주양육자 대상으로 조사.

출처: 1)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류정희 외, 201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60~261.

2)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99~300.

영유아가 생애초기에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 된다. 이에 주양육자의 보호(Protection)와 반응적 양육(responsive caregiving)은 영유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WHO, 2018).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기관 이용과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과 5년이라는 시간 변화에 따라 부모의 양육 형태 및 양육 부담 형태 또한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육아휴직 이용자 중 아버지의 비율은 2018년 8.5%에서 2021년 24.1%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박은정, 2024).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5세의 경우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90.4%로 2018년의 92.0%보다 1.6%포인트 낮아진 반면 아버지가 주양육자라고 한 경우는 6.0%로 2018

년의 4.1%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나. 아버지의 영유아 양육 부담 변화

2023년 기준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므로(표 1) 대부분의 주양육자 응답은 어머니가, 대부분의 배우자 응답은 아버지가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육 내용별 양육 부담에서 2018년과 2023년의 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 최근 5년 사이 아버지의 양육 양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주양육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은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식사 준비나 설거지, 청소 등을 거의 매일한다는 비율이 다소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이상정 외, 2023 p. 302), 주양육자의 배우자가

대부분인 아버지의 양육 분담은 잠 재우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신체놀이, 아이에게 책 읽어 주기,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등을 ‘거의 매일’ 한다는 비율이 2018년에 비해 2023년 조사에서 10%포인트 전후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시기 전후 2018년과 2023년 사이에 아버지의 실질적 양육 참여가 상당히 높아져 영유아

부모의 돌봄 양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양육 분담에서 어머니가 주로 맡아 돌봄 분담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잠 재우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등 돌봄노동에 해당하는 직접 돌봄 영역에서 아버지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으로 잠 재우기가 25.8%포인트, 목욕시키기가 24.2%

[표 2] 아버지의 영유아 양육 참여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23년						
	한적 없음	연 1~2회	한 달 1~2회	일주일 1~2회	거의 매일	해당 없음	사례 수	한 적 없음	연 1~2회	한 달 1~2회	일주일 1~2회	거의 매일	사례 수	
식사 준비나 설거지	25.5	16.6	26.4	22.8	7.4	1.2	3,240	31.1	13.4	22.3	21.0	12.3	4,715	
집안 청소	20.9	20.4	29.8	22.1	6.0	0.7	3,240	26.2	14.4	25.7	23.5	10.2	4,715	
장보거나 쇼핑	12.0	14.7	38.8	30.1	4.0	0.3	3,738	14.8	9.9	35.6	31.3	8.3	5,243	
잠 재우기	12.8	9.7	27.9	37.2	11.2	1.2	1,715	11.8	7.2	19.4	37.0	24.5	2,317	
목욕시키기	20.1	12.4	27.5	30.6	8.4	1.0	2,401	22.5	8.7	18.7	32.6	17.5	3,251	
기저귀 갈기	28.3	7.3	15.1	30.1	13.9	5.3	1,186	30.5	3.0	9.8	30.2	26.5	1,324	
밥이나 우유 먹이기	9.4	7.1	23.9	43.0	15.4	1.2	1,186	7.6	4.8	14.6	43.3	29.8	1,324	
장난감놀이나 신체놀이	15.9	12.4	27.0	31.8	12.0	1.0	2,401	15.3	7.5	22.7	36.0	18.5	3,251	
아이에게 책 읽어 주기	18.2	13.6	27.0	32.0	8.4	0.8	2,401	21.9	12.4	22.7	29.1	14.0	3,251	
아이와 운동, 스포츠, 바깥놀이	17.1	20.3	32.5	24.6	4.7	0.8	3,738	17.7	13.1	29.4	31.3	8.5	5,243	
아이와 TV나 비디오 시청	10.2	10.6	21.7	37.2	17.7	2.7	3,738	16.1	9.7	22.8	34.5	16.8	5,243	
아이와 컴퓨터, 게임	38.7	16.5	24.8	15.5	3.2	1.2	3,738	44.9	12.9	18.2	17.4	6.6	5,243	
숙제 및 학업지도	35.5	23.1	26.4	11.3	3.2	0.5	2,023	42.3	16.0	22.6	14.0	5.1	2,926	
취미활동	31.5	21.2	24.8	17.3	4.4	0.8	3,738	32.3	14.3	25.1	21.6	6.7	5,243	
아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하원	35.6	23.0	22.2	13.2	4.5	1.6	3,738	39.6	14.8	19.7	15.8	10.2	5,243	

주: 1) 응답자는 0~5세를 양육하는 주양육자의 배우자임. 어머니가 주양육자의 약 90%를 차지하여 아버지로 표현함(주양육자가 어머니인 비율: 2018년 92.3%(0~2세), 90.8%(3~5세), 2023년 90.7%(0~2세), 91.0%(3~5세).

2) 배우자 없는 경우 2018년은 ‘해당 없음’, 2023년은 분석에서 제외하여 해석에 주의 필요.

3) 아동에 대한 직접 돌봄 항목에 음영 처리함.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03. 표 일부 제시.

포인트 높아졌는데, 2018년과 2023년 조사가 표본 대상에 차이가 있고, 2023년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버지의 직접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확연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시기에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이유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가치관 변화, 향상된 남성 육아휴직 비율,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 변화가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공동양육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가시간을 함께하는 영역으로 보이는 '아이와 TV나 비디오 시청', '아이와 컴퓨터, 게임', '숙제 및 학업지도' 등 일부 영역에서는 '한 적 없음'의 비율이 2018년에 비해 2023년에 늘어나는 등 아버지의 돌봄 영역이 지금까지 여가시간 영역

에 주로 머물렀던 현상과 차이를 보인다.

다. 양육자의 돌봄의 질: 양육 스트레스

아동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돌봄의 주요 요소 중 반응적 돌봄(responsive caregiving)은 양육자가 영유아의 움직임, 소리, 몸짓, 언어적 요청 등을 잘 관찰하고 반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WHO, 2018: 14), 영유아와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양육이 잘되고 있는지는 부모와의 안정 애착 형성, 부모·영아 상호작용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유아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항목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 시

[표 3] 양육 스트레스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23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전체(0~17)		27.59	8.40	4,039	24.87	8.51	5,753
아동 연령	0~2세	26.87	8.66	512	25.36	8.35	543
	3~5세	27.27	9.11	730	25.28	8.63	830
	6~8세	26.87	7.81	579	25.40	8.26	1,046
	9~11세	27.80	8.11	743	24.47	8.67	1,034
	12~17세	28.16	8.26	1,476	24.55	8.52	2,300
표본	일반	27.42	8.38	3,864	24.74	8.49	5,563
	수급	31.31	7.96	175	28.68	8.17	190
소득 수준	중위소득 50% 미만	31.55	8.12	368	25.80	8.34	615
	중위소득 50~100% 미만	27.32	8.05	1,541	25.53	8.67	1,860
	중위소득 100~150% 미만	27.15	8.56	1,563	25.18	8.61	1,730
	중위소득 150% 이상	26.94	8.53	532	23.23	7.99	1,509
	무응답	26.93	5.46	36	29.30	9.25	39

[표 3] 계속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23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지역	대도시	28.49	8.42	1,676	24.41	8.33	2,701
	중소도시	26.85	7.97	2,107	25.28	8.71	2,731
	농어촌	26.76	10.75	256	25.29	8.02	320
가구 유형	양부모	27.36	8.39	3,789	24.63	8.51	5,228
	한부모·조손	31.04	7.69	250	27.29	8.13	5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35	8.34	2,201	24.52	8.56	2,732
	외벌이	27.74	8.43	1,753	25.02	8.45	2,851
	기타	30.42	8.67	85	28.07	7.93	170

주: 1) 0~17세 주양육자 대상으로 조사.

2) 양육 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개발하고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번역한 PSI-SF 척도 중 부모 스트레스 영역의 11문항을 사용하였는데 (5점 척도), 최저 11점, 최고 55점 사이의 점수를 나타냄.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 (예시 문항: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등)

출처: 1)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류정희 외, 201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9.

2)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p. 309.

태도나 심리를 확인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수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데, 소득 기준 무응답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자녀 연령과 세부 집단에서 2018년에 비해 2023년의 수치가 낮았다. 돌봄의 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것은 양육 방향이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맞벌이, 대도시 거주 양육자의 경우에도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줄었지만, 맞벌이 유무 및 거주 지역 세부 집단 간의 스트레스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수급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한부모·조손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가. 영유아 기관 이용과 돌봄 이용 비율 및 비용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을 파악할 때 영유아 시기에 낮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 이상 인 학원을 비롯하여 시간제로 이용하는 학원 및 과외 등에 해당하는 사교육, 그리고 조부모 돌봄 및 육아 도우미 돌봄에 해당하는 기타돌봄으로 나누어 이용 유무를 파악하였다. 어린이집은 0~5세, 유치원은 3~5세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은 2018년에 비해 2023년에 5.4%포인트 높아졌고, 민간어

[표 4] 영유아 기관 및 기관 외 돌봄 이용 비율 및 비용

(단위: %, 만 원, 명)

구분	2018년						2023년					
	이용 비율	이용 비용				이용 비율	이용 비용				사례 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SD		최솟값	최댓값	평균	SD		
보육·교육 기관 이용	국공립어린이집	19.1	0	38	17.9	11.4	24.4	0	60	10.3	13.0	335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제외)	37.1	0	60	18.0	13.1	27.7	0	70	14.8	13.7	381
	가정어린이집	11.0	0	48	20.6	14.8	5.9	0	51	11.5	13.9	81
	직장어린이집	0.4	0	17	7.3	6.3	1.7	0	55	19.4	18.3	23
	국공립유치원	-	-	-	-	-	5.9	0	60	8.1	12.0	80
	사립유치원	-	-	-	-	-	14.7	0	250	26.2	28.7	202
기관 외 돌봄 이용	친인척	1.2	0	100	53.4	29.9	9.9	0	200	29.4	41.4	136
	이웃이나 육아 도우미 (집에서 아이를 돌봐 주는 가정보육사)	0.0	5	20	9.5	-	1.6	0	200	67.8	67.9	22
	기타	-	-	-	-	-	0.3	2	100	42.0	47.0	4

주: 1) 0~5세 주양육자 대상으로 조사.

2) 2018년 조사에서는 유치원 이용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구분을 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움.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44-230의 표 중 각 항목에 대해 이용 여부를 물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만 표시하였고, 기관 이용, 개인돌봄 영역을 종합하여 재구성함.

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각각 9.5%포인트, 5.1%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보육의 공공화 노력 증가와 동시에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민간 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이 감소한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보육·교육 비용 중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10만 3000원, 민간어린이집 평균 14만 8000원, 가정어린이집 11만 5000원, 직장 어린이집 19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 비용은 국공립유치원 평균 8만 1000원(방과후 4만 5000원), 사립유치원 평균 26만 2000원(방과후 11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수치

와 비교해 보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4만~9만 원 정도 평균 비용이 감소하였고, 직장 어린이집은 12만 원 정도 증가하였다.

나. 영유아 사교육 이용 현황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 등 사교육 이용률과 그 비용을 확인하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2023년에는 2.4%로 2018년 0.6%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하였고, 시간제 학원은 2023년 13.5%가 이용하여 2018년 4.7%에 비해 8.8%포인트 높아졌다. 5년 사이 영유아의 학원 이용이

[표 5]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 비율 및 비용

(단위: %, 만 원, 명)

구분	2018년					2023년					사례수
	이용 비율	이용 비용				이용 비율	이용 비용				
		최솟값	최댓값	평균	SD		최솟값	최댓값	평균	SD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포함)	0.6	33	50	47.8	6.2	2.4	0	250	50.1	68.1	33
시간제 학원(예체능, 영어, 보습 등)	4.7	3	30	12.4	4.6	13.5	0	200	19.8	17.3	186
개인 그룹과외	0.3	5	30	25.7	10.9	0.3	0	45	13.6	10.2	24
학습지(태블릿 학습지 포함)	14.0	0	23	7.5	3.8	12.7	0	50	10.6	6.4	175

주: 0~5세 주양육자 대상으로 조사.

출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44~230의 표 중 각 항목에 대해 이용 여부를 묻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만 표시하였고, 사교육 영역을 종합하여 재구성함.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학원 이용의 경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 수학, 영어 등 학습적인 학원 이용이 혼합되어 있어 사교육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에는 분리된 분석이 필요하다. 비용을 살펴보면 사교육 영역인 반일제 이상 학원은 평균 이용 비용이 50만 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학원은 평균 19만 8000원, 개인 그룹과외는 13만 6000원, 학습지는 10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과외 비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였다. 돌봄 영역인 친인척 돌봄은 평균 29만 4000원, 이웃이나 육아 도우미 비용은 평균 67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 및 시간제 학원 비용, 학습지 비용도 다소 증가하였으나, 개인 그룹과외 비용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웃이나 육아 도우미 비용도 2018년 평균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평균 비용은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사례 수가 적고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4 영유아 발달 현황 분석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영유아들도 3~4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면 기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경험이 줄어들었다. 이 기간에는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코로나19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코로나 전후 영유아 발달을 다룬 연구에서는 사회성, 언어, 대근육, 소근육, 자조, 인지 순으로 코로나 전후 발달 격차를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은희, 정지현, 2022). 하지만 인지 영역에서는 코로나 전후의 변화가 크게 나타

나지 않아(최은영 외, 2023) 영유아 발달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의 건강 및 발달 측면을 아동실태조사에서 측정된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을 2018년과 2023년 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 영유아 인지발달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부모가 관찰

하여 응답하며,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측정하였다. 발달 영역 중에서는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영역의 발달 검사를 포함하였다. 2018년에는 인지발달, 언어발달 검사만 포함하여 이에 대해서만 2018년과 2023년 사이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성발달 영역 검사는 2023년에 처음 추가되었다. <표 6>에서는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의 결과를 성별, 연령, 수급 여부,

[표 6]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인지발달 결과: 연도별 비교용

(단위: %, 명)

구분		2018년 인지발달			2023년 인지발달		
		평균	SD	사례 수	평균	SD	사례 수
[전체]		2.23	0.57	1,217	2.46	0.52	1,372
아동 성별	남자	2.24	0.54	626	2.46	0.51	686
	여자	2.22	0.59	591	2.46	0.53	686
아동 연령	0~2세	2.14	0.55	500	2.46	0.53	543
	3~5세	2.29	0.57	717	2.46	0.52	830
표본	일반	2.23	0.57	1,196	2.47	0.52	1,349
	수급	2.10	0.59	21	2.22	0.72	23
소득 수준	중위소득 50% 미만	1.83	0.74	96	2.41	0.53	140
	중위소득 50~100% 미만	2.22	0.55	585	2.40	0.54	519
	중위소득 100~150% 미만	2.35	0.53	415	2.45	0.53	395
	중위소득 150% 이상	2.18	0.49	119	2.60	0.45	310
	무응답	3.00	0.00	3	2.43	0.59	9
지역	대도시	2.15	0.60	464	2.48	0.50	641
	중소도시	2.34	0.49	671	2.45	0.54	667
	농어촌	1.78	0.69	82	2.32	0.56	64
가구 유형	양부모	2.24	0.57	1,164	2.47	0.52	1,328
	한부모·조손	1.96	0.54	52	2.35	0.61	4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7	0.51	368	2.56	0.49	535
	외벌이	2.22	0.59	820	2.40	0.53	809
	기타	1.98	0.57	29	2.45	0.68	28

주: 0~5세 주양육자 대상으로 조사.

출처: 1)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류정희 외, 201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90.

2)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6.

소득 수준, 지역, 가구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인지발달의 2023년 조사 기준 평균은 2.46점/3점으로 2018년의 2.23점/3점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2018년보다 2023년의 인지발달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023년 결과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150% 이상인 고소득 집단의 인지발달이 2.60점으로 평균 대비 높았고,

지역 구분으로는 농어촌 거주 영유아의 인지발달이 2.32점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 영유아에 비해 낮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유형으로는 한부모·조손가구가 2.35점으로 양부모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나. 영유아 언어발달

영유아의 언어발달은 2023년 조사 결과 평균

[표 7]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언어발달 결과: 연도별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8년 언어발달			2023년 언어발달		
		평균	SD	사례 수	평균	SD	사례 수
[전체]		2.25	0.55	1,217	2.40	0.56	1,372
아동 성별	남자	2.24	0.54	626	2.38	0.56	686
	여자	2.26	0.56	591	2.42	0.56	686
아동 연령	0~2세	2.15	0.58	500	2.38	0.58	543
	3~5세	2.32	0.52	717	2.41	0.55	830
표본	일반	2.25	0.55	1,196	2.41	0.55	1,349
	수급	2.06	0.63	21	2.14	0.82	23
소득 수준	중위소득 50% 미만	2.02	0.65	96	2.37	0.57	140
	중위소득 50~100% 미만	2.21	0.52	585	2.33	0.59	519
	중위소득 100~150% 미만	2.33	0.54	415	2.41	0.54	395
	중위소득 150% 이상	2.29	0.60	119	2.53	0.51	310
	무응답	2.75	0.00	3	2.37	0.60	9
지역	대도시	2.18	0.60	464	2.41	0.55	641
	중소도시	2.32	0.50	671	2.41	0.56	667
	농어촌	2.03	0.54	82	2.24	0.59	64
가구유형	양부모	2.26	0.55	1,164	2.40	0.56	1,328
	한부모·조손	2.00	0.56	52	2.34	0.62	4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5	0.55	368	2.50	0.54	535
	외벌이	2.25	0.55	820	2.33	0.56	809
	기타	2.14	0.51	29	2.43	0.74	28

주: 0~5세 주양육자 대상으로 조사.

출처: 1)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류정희 외, 201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93.

2)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7.

2.40점/3점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2.25점/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2018년보다 2023년의 언어발달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023년 결과 기준으로 세부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3~5세가 0~2세보다, 일반가구가 수급가구보다 점수가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위소득 150% 이상인 고소득 집단이 2.53점으로 평균 대비 높았고, 지역 구분으로는 농어촌 거주 영유아의 언어발달이 2.24점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 영유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으로는 한부모·조손가구가 2.34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로는 외벌이가구가 2.33점으로 양부모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지, 언어 발달의 경우 2018년 아동종합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서는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위에서 살펴본 양육자의 질을 변화와 연관지어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 시기에 외부 활동 기회 및 대면 기회가 많이 차단되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양육자의 반응적인 양육 행태를 파악했을 때, 아버지의 양육 영역은 넓어지고 질은 좋아졌다. 양육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등 양육자의 반응적 돌봄의 질이 향상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발달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다. 영유아 사회성발달

사회성발달의 2023년 조사 평균은 2.35점/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성발달은 2023년 처음 포함된 영역으로 2018년 결과와의 비교는 할 수 없으나 2023년의 인지발달, 언어발달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8>을 살펴보면 사회성발달 결과는 언어발달과 인지발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유형으로는 일반가구가 수급가구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소득 수준별로는 중위소득 150% 이상인 고소득 집단의 사회성발달이 2.48점으로 평균 대비 높았다. 지역 구분으로는 농어촌 거주 영유아의 사회성발달이 2.19점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 영유아에 비해 낮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 유형으로는 한부모·조손가구가 2.38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로는 맞벌이가구 영유아가 2.45점으로 외벌이가구 2.28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모두에서 소득, 지역, 양부모가구 여부 등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차이가 나타나, 영유아 가구의 환경적 취약함이 영유아의 발달 상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 가정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언어, 사회성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 연구는 한부모가구 어머니의 낮은 자아효능감이 양육 태도에 영향을 주어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정혜림, 2012).

[표 8] 2023년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 결과(인지, 언어, 사회성)

(단위: 점)

구분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사례 수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2018 [전체]	2.23	0.57	2.25	0.55	-	-	1,217	
2023 [전체]	2.46	0.52	2.40	0.56	2.35	0.55	1,372	
아동 성별	남자	2.46	0.51	2.38	0.56	2.35	0.53	686
	여자	2.46	0.53	2.42	0.56	2.36	0.57	686
아동 연령	0~2세	2.46	0.53	2.38	0.58	2.40	0.56	543
	3~5세	2.46	0.52	2.41	0.55	2.33	0.54	830
표본	일반	2.47	0.52	2.41	0.55	2.36	0.54	1,349
	수급	2.22	0.72	2.14	0.82	2.17	0.73	23
소득 수준	중위소득 50% 미만	2.41	0.53	2.37	0.57	2.34	0.55	140
	중위소득 50~100% 미만	2.40	0.54	2.33	0.59	2.27	0.58	519
	중위소득 100~150% 미만	2.45	0.53	2.41	0.54	2.37	0.52	395
	중위소득 150% 이상	2.60	0.45	2.53	0.51	2.48	0.50	310
	무응답	2.43	0.59	2.37	0.60	2.24	0.60	9
지역	대도시	2.48	0.50	2.41	0.55	2.36	0.52	641
	중소도시	2.45	0.54	2.41	0.56	2.36	0.57	667
	농어촌	2.32	0.56	2.24	0.59	2.19	0.53	64
가구유형	양부모	2.47	0.52	2.40	0.56	2.35	0.55	1,328
	한부모·조손	2.35	0.61	2.34	0.62	2.38	0.59	4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6	0.49	2.50	0.54	2.45	0.51	535
	외벌이	2.40	0.53	2.33	0.56	2.28	0.56	809
	기타	2.45	0.68	2.43	0.74	2.49	0.67	28

주: 0~5세 주양육자 대상으로 조사.

출처: 1)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류정희 외, 2019,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91~193의 표를 종합하여 제시함.

2)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이상정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16~218의 표를 종합하여 제시함.

5 영유아 발달 및 보육·교육을 위한 향후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영유아 발달과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영유아 돌봄 및 부모 양육 지속적 지원

2024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지원,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큰 세 축으로 내세웠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최근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등이 이뤄졌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제 도입 등 부모가 육아휴직 등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 이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영유아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018년에 비해 2023년의 조사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보다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 부담에서 잠 재우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신체놀이,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등의 직접적인 돌봄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양육 스트레스의 완화 등 양육자의 돌봄 변수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발달도 2018년보다 2023년에 향상되었다. 양육자의 양육과 돌봄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양육자의 비율은 한부모가구, 조손가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 가정 등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90% 이상을 보이고 있어 부부 간 공동양육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

성의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대체근무 지원금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또는 단축근무를 활성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근무 단축에 대한 인식을 넓혀 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기업의 문화 인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

나. 영유아 발달 상황 파악 및 대처를 위한 지원 방안

1) 양육 취약 대상의 발달검사 제공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를 활용하였는데, 발달 영역별 점수를 기반으로 연도별, 집단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인지발달, 언어발달 저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득 수준별, 지역별, 가구 유형별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돌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확인하였던 양육 스트레스도 2018년, 2023년 모두 수급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한부모·조손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도 소득이 낮은 가구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양육 및 발달 상황 등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지속적인 취약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가구들을 미취학 영유아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유아 발달검사를 지원하고, 부모 양육 태도 및 양육 스트레

스 등 부모 대상 검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보육·교육 기관, 부모와 연계된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체계 구축

위에서 발달 및 양육 취약 대상을 선정하여 검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양육 취약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부모 및 영유아 대상 제도를 찾아가 혜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원 필요 대상 영유아의 발달을 살펴보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주양육자뿐 아니라 영유아가 다니는 보육·교육 기관의 교사가 객관적으로 영유아의 월령별·연령별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정서발달 등 발달 영역별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이 발견될 경우 검사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달 지연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의 교사와 부모가 기관과 가정에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인 K-SIED(Korean Screening Index for Early Development)를 개발하여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은진 외, 2022; 김은설 외, 2023). 이러한 도구의 개발과 활용도 중요하지만,

조기 개입이 필요한 영유아는 체계적으로 심층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연계된 상담사에게 전문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의뢰할 수 있고, 영유아 관찰 및 상담 연계, 그리고 부모 상담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중심으로 사교육 현상 완화 필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5세 미취학 영유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80% 정도의 기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0~5세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59.7%, 3~5세가 이용하는 유치원이 20.6%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기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김은설 외, 202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인적 발달, 부모 대리 보호, 사회성발달, 양육 부담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돌봄과 교육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대상 사교육 이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대신 반일제 학원⁵⁾을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후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2023년에는 시간제 학원 이용 비율이 13.5%로

5) 반일제 학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운영하는 학원으로 일명 영어 유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8년보다 8.8%포인트 높아졌고, 비용 또한 월 평균 7만 4000원이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에는 WHO(2018)의 양육·돌봄 개념에 나타나듯이 양육자의 반응적인 돌봄, 건강과 함께 생애 초기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개념에서는 영유아가 양육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사회적 학습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적인 사교육에 영유아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에서 보육·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커리큘럼에 초점을 맞추어 놀이 중심, 관계 중심으로 배워 가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6 나가며

2018년과 2023년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자의 돌봄 형태, 영유아의 발달과 보육·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고 5년간의 차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상황 및 정책 등의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은 전생애 발달의 기초가 되며 영유아를 둘러싼 양육 환경,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환경과 보육의 질, 영유아의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질, 영유아 부모의 직장 및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양육에 대한 지지, 영유아가 살아가는 사회, 국가가 제공하는 발달을 위한 지지 등 다차원적인 지지 체계의 융합

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애 초기 2년의 발달이 전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본바 코로나19 전후에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상대적인 저하가 보였으나,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변화로 인해 인지, 언어발달의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 소득별, 가구 특성별 차이에 대한 발달 차이가 발견되었다. 지속적인 지원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달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돌봄 환경이 되는 양육자의 질 높은 상호작용 시간을 지원해 주고,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와 가정 지원, 영유아 기관에서의 국가적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눈높이와 발달 상황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 (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1):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관계부처 합동.
- 권진아, 김지연. (2021). 가정에서의 유아 놀이와 신체활동의 변화 탐색: 코로나19 중심으로. **한국아동권**

- 리학회, 25(4). 593-616.
- 고용노동부. (2024. 10. 16.).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서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보도자료].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 한가정학회**, 35(5), 141-150.
- 김은설, 김아름, 김지현, 김희수, 전효정, 김민정, 고은경, 최일선, 김형미, 김영아, 김예진, 김용진, 최정원. (2023).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부모용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종, 유민상, 이봉주. (2019). 2018년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정. (2024). 남성 자녀돌봄의 현재와 남성 돌봄 친화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포럼, 제81호**. 육아정책연구소.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 2020. 12. 2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939#0000>
- 이상정, 이주연, 전진아, 김수진, 임성은, 신영규, 류정희, 하태정, 권영지, 김시아, 김지현, 유민상. (2023).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보도자료].
- 정혜림. (2012). 빈곤가정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영유아의 언어·사회성발달 간 관계: 한부모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3), pp. 67-97.
- 최은영, 김은영, 김태우, 윤정환, 이영애, 박희현, 최윤경. (2023). **코로나 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희, 정지현. (2022). 코로나 19 전후 영유아 발달격차에 대한 영유아교사 인식.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 9(2), 137-165.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Nurturing Car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 Framework for Helping Children Survive and Thrive to Transform Health and Human Potential*.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272603/9789241514064-eng.pdf>.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Education

Kim, Ji Hyu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constitute a period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in this early phase forms the foundation for subsequent physical,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growth. Thu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foundational development milestones for children from birth on are well on track, and that high-quality care and education services are provided to foster their healthy development down the line. In this article, I examine how things stand in Korea with early-childhood development—cognitive, linguistic, and social—and care, through a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the two latest rounds of the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one conducted in 2023 and the other in 2018. I also identify tasks that need to be undertaken in the area of childcare support policy in order to better support healthy development and at-home childcar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